

부키
중·고등학생용
도서목록

2012

book catalogue 2012

신간

과학 ·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 2 | 미스터 풍 과학에 빠지다 ... 3 | 진화의 종말 ... 4

진로 ·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 ... 5

수학 · 수능 수학의 지름길: 수학1 ... 6 | 수능 수학의 지름길: 미적분과 통계 기본 ... 7

개념부터 다시 시작하는 **Reset! 수학 시리즈** 미적분 · 확률과 통계 · 지수와 로그 · 허수와 복소수 ... 8

숫자의 탄생 ... 10 | 꿈지샘의 친절한 수학 중3-하 ... 11

문학 · 황혼의 들판 ... 12 | 조금 달라도 괜찮아 ... 13 | 마이 리틀 레드북 ... 14

외국어 · 도쿄대 영단어 280 ... 15

인문 · 세상이 주목한 책과 저자 ... 16 | 지난 10년, 놓쳐서는 안 될 아까운 책 ... 17

진로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 · 출판편집자가 말하는 편집자 ... 19 | 광고인이 말하는 광고인 · 스튜어디스 · 스튜어드가 말하는 항공 승무원 · 방송작가가 말하는 방송작가 ... 20 | 만화가 말하는 만화가 · 판사 · 검사 ·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 요리사가 말하는 요리사 ... 21 | 디자이너가 말하는 디자이너 ·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 ·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 22 | 의사가 말하는 의사 · 기자가 말하는 기자 · PD가 말하는 PD ... 23

수학

꿈지샘의 친절한 수학 중3-하 ... 24 | 꿈지샘의 친절한 수학 중1-상 · 하, 중2-상 · 하, 중3-상 ... 25 | 친절한 도형 교과서 ①②③ ... 26 | 친절한 수학 교과서 ①②③ ... 27

과학

세계를 움직인 과학의 고전들 ... 28 | 아인슈타인의 생각 실험실 ①② ... 29 | New 과학은 흐른다 ... 30 | 다윈은 세상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 요리로 만나는 과학 교과서 ... 31

필립 리브의 견인 도시 연대기 4부작 황혼의 들판 ... 32 | 악마의 무기 · 사냥꾼의 현상금 · 모텔 엔진 ... 33

우리 학교가 달라졌어요 ... 34 | 아서왕, 여기 잠들다 ... 35 | 숯버스 · 나는 멋지고 아름답다 ... 36 |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 췌, 조용해! · 유평미스트 ... 37 | 풀무학교 이야기 · 들꽃들이 들려주는 위대한 백성 이야기 ... 38 | 까칠한 가족 · 까칠한 가정부 ... 39

베토벤 심리 상담 보고서 · 빼딱한 예술가들의 유쾌한 철학 교실 · 인간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 40 | 20세기 박물관 시리즈 · 선비들의 고단한 여정 ... 41

미래에서 온 편지 · 블루진, 세계 경제를 입다 ... 42 | 한국의 보노보들 · 보노보 혁명 · 우리 모두를 위한 비폭력 교과서 ... 43

레드카드, 대한민국 영어공부 · 나의 영어 공부 이력서 · 중학생 공부 고민 상담실 ... 44

한줄로 익히는 초등한자 650 ①② · 만화로 즐기는 한자 오디세이 ...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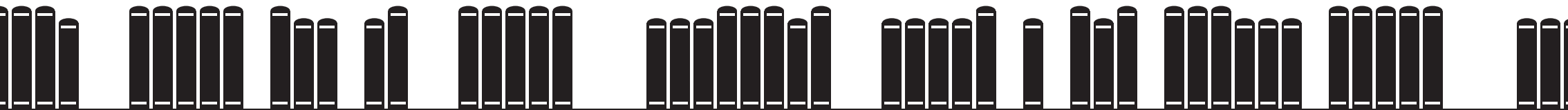
문학

역사 · 철학

사회

영어 · 학습법

한자





살아남은 동물들의 비밀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최형선 지음
신국판 변형 | 256쪽 | 14,000원

2012 KBS한국어능력시험 선정도서
2011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북리펀드 2011년 6월 선정도서

지구 생태계 대표 동물들의 아름다운 진화 이야기

치타의 얼굴에는 왜 까만 줄이 있을까? 기회주의자를 왜 박쥐라고 부를까?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여기에 답하는 동시에 에베레스트를 넘는 줄기리기, 바다로 간 고래 등 지구 생태계를 대표하는 여덟 동물을 통해 살펴본 아름다운 진화 이야기.

늘 같은 자리에서 평화롭게 살아왔을 것 같은 동물들이 사실은 수천만 년 전부터 끊임없이 환경을 극복하고 다른 동물과의 경쟁에서 돌파구를 찾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여 준다.

등장 동물들의 신체 구조와 생존의 비밀을 자세히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고 인간 사회에 비추면서 생태적인 감수성을 자극한다. 생태학 박사인 저자는 “생태계는 다양한 생존 노력이 모여 공존의 기쁨을 알려 주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 다양한 동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넓고 깊게 다룬다. 이 책만큼은 누구에게 주지 않고 두고두고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_오마이뉴스



호기심으로 떠나는 창의력 여행 미스터 풍과 과학에 빠지다

송은영 글 | 박수영 그림
신국판 변형 | 272쪽 | 12,500원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
북리펀드 2012년 1월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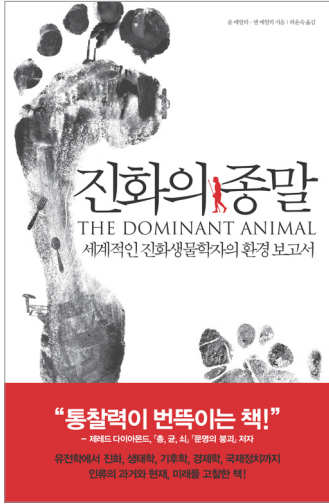
퀴즈와 콩트, 좌충우돌 코미디를 한데 버무린 ‘명랑 과학’의 세계!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 두면 더 달달해지는 이유는 뭘까? 호수가 팽퐁 얼었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살아 있을까? 기계로 바람을 넣은 풍선은 공중에 잘 뜨는데 입으로 분 풍선은 왜 그렇지 못할까? 호기심과 엉뚱함으로 푹푹 뭉친 미스터 풍과 함께 떠나는 창의력 여행.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숨은 과학 원리와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의문, 궁금증 등을 1~4컷짜리 카툰을 통해 제시하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과학이라면 지레 부담부터 갖게 되는 청소년들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읽을 수 있는 ‘과학책’이다. 사소한 호기심에서 발전한, 과학사의 발명과 발견 에피소드도 장마다 소개돼 있다.

1999년 출간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된 『Mr. 풍 과학에 빠지다』의 내용을 보강하고 새롭게 만화를 곁들여 펴낸 개정 증보판이다.

▶ 시트콤처럼 가볍고 경쾌하게 과학 지식을 실어 나르는 과학책. _세계일보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의 환경 보고서

진화의 종말

폴 에얼릭·앤 에얼릭 지음 | 하윤숙 옮김
 신국판 변형 양장 | 560쪽 | 23,000원

“통찰력이 번뜩이는 책!”

- 제러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문명의 붕괴』 저자
 유전학에서 진화, 생태학, 기후학, 경제학, 국제정치까지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고찰한 책!

호모 사피엔스 한 종이 어떻게 지구를 위협하게 되었을까?

진화론의 모든 쟁점과 환경·정치 문제를 접목시킨 걸작!

인류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전적·문화적 진화를 하였고, 그 덕분에 과학 발전을 이루고 지배적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진화론의 모든 질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선택압’이 된 인류는 수많은 생물종을 멸종시켰으며, 그 자신 또한 스스로 변화시킨 환경의 영향을 떠안는 미래의 ‘멸종 위기종’으로 몰리고 있다.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인 에얼릭 부부는 진화론에서 기후학, 인구학, 생태학, 국제 정치까지 아우르는 큰 그림을 통해 인류의 발걸음을 돌아보고 전망한다.

- ▶ 통찰력이 번뜩이는 이 책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 둘 사이의 상호 영향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로 이끄는 훌륭한 안내자이다. 이 안내자를 따라가는 동안 당신은 여기저기서 맛깔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_제러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저자
- ▶ 진화생물학을 ‘생물학’의 영역에 가둬두지 않고 환경, 생태, 문화 나아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통찰로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_국제신문



부키 전문직 리포트 14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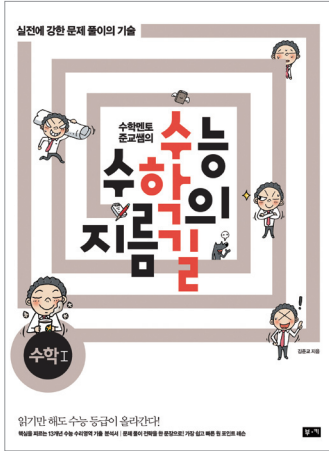
이상림 외 16인 지음
 신국판 | 222쪽 | 9,500원

2012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청소년 권장도서
 2011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북리펀드 2011년 7월 선정도서

17명의 건축가들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흥미진진한 건축가의 세계

진로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이나 많은 구직자에게 한국 건축가들의 삶과 고민, 도전을 소개한 책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주택이나 공공건물, 상업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들은 물론이고 건물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구조 설계, 건설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해 주는 도시 설계, 조경 등 다양한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일과 생활, 보람과 애환을 흥미진진하면서도 진지하게 전한다. 또, 새내기 건축가들의 좌충우돌 일기와 건축가의 노동 강도, 보수, 전망, 건축가에서 건축사가 되는 과정 등 건축가라는 직업에 대한 실제적 정보도 풍부하게 담고 있어서 건축가를 꿈꾸는 모든 이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 준다.

1장 건축가는 누구인가 | 2장 건축 새내기의 좌충우돌 일기 | 3장 다양한 건축가의 세계 | 4장 더 넓은 건축의 세계 | 5장 건축가 정보 업그레이드 | 부록 전국 건축대학 일람표



수학멘토 준교쌤의
실전에 강한 문제 풀이의 기술

수능 수학의 지름길

수학1

김준교 지음
사륙배판 | 304쪽 | 15,000원

**시중 어느 문제집에서도 볼 수 없는
핵심을 꿰뚫는 최적의 풀이 과정을 담았다!**

대형 입시학원에서 수리영역 대표 강사로 재직하고, 네이버 카페 '준교쌤 수학교실'에서 무료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들의 '수학 도우미'로 활동해 온 저자의 수학 문제 풀이 노하우를 오롯이 담은 책.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중요 유형 205문제를 엄선해 지수와 로그함수, 행렬, 수열 등 총 3장으로 분류해 놓았다. 단순한 요약식이나 문제 나열식의 기존 수능 수학 도서와는 달리 수능 수학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준교쌤의 공략법' 코너에서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짚어 주고, '준교쌤에게 물어봐'에서는 오답노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등 수험생들이 평소 답답해했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 준다.

- ▶ 가장 큰 장점은 준교쌤만의 특별한 문제 풀이법이다. 스텝1, 스텝2 단계별 풀이로 한 단계씩 밟아 갈 수 있어서 좋다. 준교쌤은 중위권에게 정말 희망이다. _독자 '또 다른 도전'
- ▶ 두세 겹의 포장지로 둘러싸인 복잡한 문제라도 빨리 풀 수 있도록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 제시된 '실전에 바로 활용 가능한 문제 풀이 아이디어'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정독한다면 훌륭한 수능 대비서가 될 것이다. _홍국진,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수학과 교사



수학멘토 준교쌤의
실전에 강한 문제 풀이의 기술

수능 수학의 지름길

미적분과 통계 기본

김준교 지음
사륙배판 | 340쪽 | 15,000원

**푸는 수학이 아닌 '읽는 수학'
읽기만 해도 등급이 올라가는 문제 풀이의 기술!**

수학은 '많은 문제를 직접 풀어 봐야 실력이 는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수능 수학의 지름길 시리즈' 두 번째 권. 이번 책은 2012년 수능부터 새로 추가된 '미적분과 통계 기본'의 대표적인 284개 문항을 수능,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에서 뽑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간단하지만 답을 구하기 까다로운 문제를 주로 다루어,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 문제 풀이 전략을 한 문장의 '제목'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준교쌤의 공략법'으로, 풀이 과정을 'step1'과 'step2'로, 문제 풀이에서 핵심이 되는 공식 등을 'point'로 밝혀 해법을 정확하게 짚어 준다. 마치 과외 선생이 옆에서 가르쳐 주는 듯한 준교쌤의 친절한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수학에 대한 울렁증이 사라질 것이다.

- ▶ 차례 구성이 정말 좋다. 자신이 풀고자 하는 유형만 쓱쓱 골라서 풀 수 있다. 부족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_독자 '라피스'
- ▶ 이 책은 철저하게 수험자 입장에서 자신의 지식을 수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_박왕근, 박왕근 박사의 수학교육연구소 소장

개념부터 다시 시작하는
Reset! 수학 시리즈

수식은 흥밋 쳐다보기만 하고 이런저런 수학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개념'이 새겨진다!

수학의 기초 체력 단련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개념부터 다시 시작하는 Reset! 수학』 시리즈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에 나오는 개념들을 알기 쉽게 풀이해 주는 '친절한 수학 개념 해설서'다. '개념과 원리를 알려 준다'는 책들이 대부분 기존의 문제집에서 개념과 원리 부분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는 데 비해, 이 시리즈는 말 그대로 '개념'과 '사고법'을 중점적으로 파고든다. '문제를 푸는' 수학책이 아니라 '보고 읽으며 이해하는' 수학책.

총 4권으로 구성되어 1권에서는 '미적분', 2권에서는 '확률과 통계', 3권에서는 '지수와 로그', 4권에서는 '허수와 복소수'를 다룬다.

- 1권 미적분 1장 적분부터 이해하자 | 2장 미분은 적분의 도우미 | 3장 미분을 다시 생각하다 | 4장 미분과 적분의 관계
- 2권 확률과 통계 1장 확률은 조금 엉성하다 | 2장 확률은 속기 쉽다 | 3장 뜻밖의 재미를 주는 확률 계산 | 4장 통계란 무엇인가
- 3권 지수와 로그 1장 세상은 지수로 이루어졌다 | 2장 지수의 원리 | 3장 n제곱이 만들어 내는 놀라운 세상 | 4장 사람에게에는 로그가 필요하다 | 5장 로그는 인간적이다
- 4권 허수와 복소수 1장 실수는 진짜, 허수는 가짜? | 2장 허수는 이렇게 인정받았다 | 3장 허수의 참모습 | 4장 이것이 허수의 힘이다

이 다 이 시리즈는 도서출판 부키의 여학 학습 브랜드인 '이다새'로 출간되었습니다. '이다새'는 '이제 다시 새롭게' 배우는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미적분

후카기와 야스히사 지음 | 전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224쪽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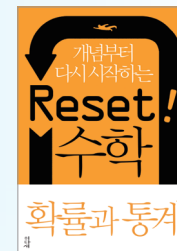
여러 비유를 통해 미적분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자 했다. 적분의 딜레마 문제는 미분을 이용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주고,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미분과 적분의 본질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북리펀드 2012년 3월 선정도서

확률과 통계

후카기와 야스히사 지음 | 전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216쪽 | 11,000원

확률 계산에서 자주 빠지게 되는 함정이나 오해를 다룬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어떻게 다른지, 확률에서 말하는 '우연한' 사건이란 무엇인지, 확률 계산 시 주의할 점이나 요령을 흥미로운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지수와 로그

후카기와 야스히사 지음 | 전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216쪽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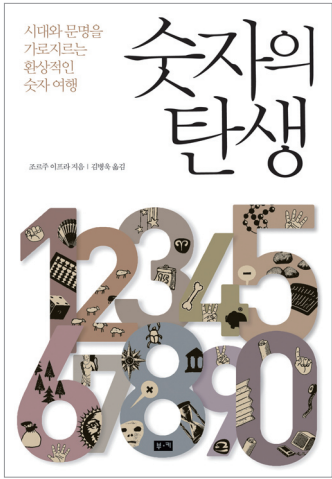
지수와 로그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개념을 현실감 있게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세상은 곱셈의 원리, 지수의 원리에 따라 급격하게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이를 덧셈의 원리에 따라 파악한다. 이로 인한 오해와 착각을 설명하면서 지수의 본질에 더욱 다가간다.

허수와 복소수

후카기와 야스히사 지음 | 전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224쪽 | 11,000원

허수와 복소수의 개념을 알수록 실수 개념이 명확해지고 수의 체계가 잡힌다. 유리수와 무리수, 음수와 허수가 인정받는 과정을 살피고, 더불어 실수와 허수의 상위 체계인 복소수를 복소평면 위에 나타내거나 극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수학적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 준다.





시대와 문명을 가로지르는 환상적인 숫자 여행

숫자의 탄생

조르주 이프라 지음 | 김병욱 옮김
신국판 변형 | 464쪽 | 16,000원

북리펀드 2011년 9월 선정도서

1과 2만 알던 선사시대에서 0을 깨달은 15세기까지 동서양의 위대한 발명이 좇아 온 숫자 발명의 역사

숫자는 어디서 온 걸까? 옛날에는 어떻게 셈을 했을까? 누가 0을 발명했을까? 이 책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다. 숫자는 불의 사용이나 농경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동안 인류가 발명을 거듭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숫자의 역사는 선사시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인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시간 여행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 책은 숫자의 탄생을 살펴보고 지성이 보편적이라는 것, 그리고 진보가 인류의 집단적이고 문화적이며 정신적인 장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 준다.

수학교수이자 고고학자인 저자답게 숫자가 역사와 만나는 지점을 절묘하게 잡아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청소년과 대중이라도 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는 것만으로 새로운 호기심과 자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숫자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 1장 수의 선사시대 | 2장 인간은 어떻게 셈을 배웠다 | 3장 기본수의 발명 | 4장 최초의 계산기들 | 5장 숫자의 발명 | 6장 막다른 골목: 그리스·로마의 숫자 | 7장 더 빨리 쓰고, 더 간단하게 표기하기 | 8장 결정적인 진보: 0의 발명 | 9장 인도, 현대 기수법의 요람 | 10장 이슬람의 황금시대와 유럽의 망설임 | 완벽을 넘어서!

- ▶ 수학의 역사가 아니라 숫자의 역사를 다루는 흥미진진한 책이다. _프레시안
- ▶ 흥미로운 방식으로 수학의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교양서로도 적격이다. _천지일보



꿈지샘의 친절한 수학

중3-하

나속자 지음
신국판 변형 양장 | 399쪽 |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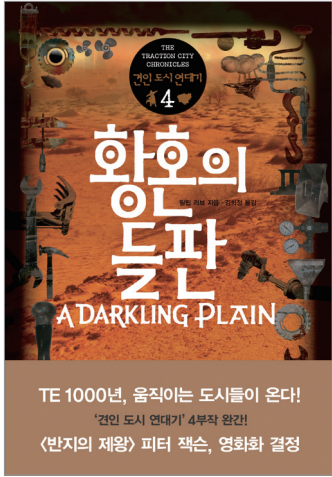
개념 이해부터 고난이도의 문제 해결 능력까지 일 대 일 수업보다 더 친절한 자학자습용 문제집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대화체로 수학의 원리와 기초 개념을 다져 주는 『친절한 수학 교과서』(전 3권) 『친절한 도형 교과서』(전 3권)의 실전용인 『꿈지샘의 친절한 수학』 시리즈의 마지막 권.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26년 동안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퇴직한 나속자 선생님은 ‘개념을 파악하고 원리를 이해한 후 이를 문제 풀이에 적용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수학을 잘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문제 풀이가 일 대 일 수업보다 더 친절하다”는 모토 아래 친절한 개념 설명과 상세한 문제 풀이,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문제를 고루 실음으로써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혼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 자학자습용 문제집이다.

『꿈지샘의 친절한 수학』 중3-하(3학년 하권)에서는 통계와 피타고라스의 정리부터 원의 성질까지 학생들이 수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여름 방학 동안 2학기를 위한 선행 학습을 하고, 고교 수학의 기초를 다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나속자 전남대학교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나와 26년 동안 노화중, 성전중, 구로중, 구일중, 백석중, 성재중, 강신중 등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학생들이 수학과 친근해지도록 수학 시 짓기, 수학 만화 그리기, 수학 일기 쓰기, 수학 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으며, 수학 교육의 새로운 시도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수학 교육 전공으로 석사를 받았다. 퇴직 후에도 가르쳤던 학생 및 학부모들과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고 있다.



견인 도시 연대기 4

황혼의 들판

필립 리브 지음 | 김희정 옮김
신국판 변형 | 656쪽 | 15,000원

견인 도시 연대기 4부작 완결편

지구 종말 이후 벌어지는 초특급 판타지 SF 어드벤처!

‘견인 도시’라 불리는 움직이는 도시 간의 먹고 먹히는 전쟁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복수, 성장을 그린 ‘견인 도시 연대기’ 시리즈는 영국 작가 필립 리브의 대표작으로, 마치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그려 내는 상상력 덕분에 전 세계 SF 팬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고 있다.

1권 『모털 엔진』에서 견인 도시 런던을 둘러싼 음모에 휘말렸던 주인공 톰과 헤스터는 흥미진진한 사건을 함께 겪으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3권 『악마의 무기』에서는 톰과 헤스터의 딸인 열다섯 소녀 렌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새로운 모험을 펼친다. ‘견인 도시 연대기’의 완결편인 『황혼의 들판』에서는 견인 도시들과 그린 스톱 간 전쟁에 휘말린 톰 가족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 비범한 과학적 상상력과 탄탄한 사회·경제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섬세하고 감동적인 인간 드라마를 엮어 낸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상상력과 즐거움에 치우쳐 주인공들의 인간미가 간과되는 경향이 있던 SF 장르에 새 지평이 열린 느낌이다. _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 견인 도시 연대기 1 모털 엔진
- 견인 도시 연대기 2 사냥꾼의 현상금
- 견인 도시 연대기 3 악마의 무기
- 견인 도시 연대기 4 황혼의 들판



푸르메 책꽂이 4

완벽한 세상에 맞선 두 엄마의 명랑 분투기

조금 달라도 괜찮아

지나 갤러거·퍼트리샤 컨조이언 지음 | 전미영 옮김
신국판 변형 | 296쪽 | 값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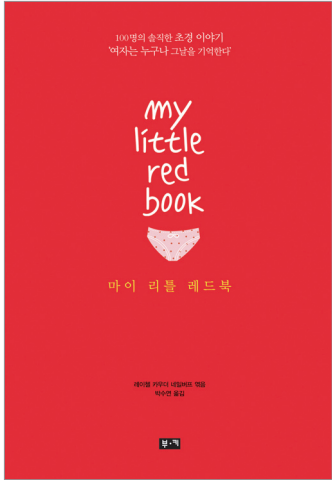
양극성장애와 아스퍼거증후군을 가진 딸을 통해 배운 진짜 행복!

완벽한 세상에 맞추려 애쓰는 아이와 부모, ‘조금 다른’ 모든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돕는 ‘푸르메 책꽂이’ 시리즈의 네 번째 책. 양극성장애(조울증)와 아스퍼거증후군(자폐증) 딸을 키우는 두 엄마가 완벽함에 집착하는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아이의 부모로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한다. 저자들은 자녀의 장애 관정으로 인한 슬픔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편견과 무지를 깨는 ‘불완전 운동’을 펴 나간다. 그와 함께 아이의 장애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일상의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과정이 약간의 눈물과 넘치는 웃음 속에 펼쳐진다. 세상에 유쾌 상쾌한 어퍼컷을 날리는 두 엄마의 분투가, 완벽하기 위해 애먼글면하는 ‘불완전한’ 우리 모두에게 “조금 달라도,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장애의 초기 징후, 학교 및 교사와 관계 맺기, 아이와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법 등 장애아를 키우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은 물론 장애아와 그 가족을 만날 때 주의할 점, 친구나 친척이 도울 수 있는 방법 등 비장애인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다.

▶ 내가 다른 누구를 도와줄 수 없다면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돌봐 줄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는 말은 이제 되돌려 준다는 말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_김태원, 가수



100명의 솔직한 초경 이야기
'여자는 누구나 그날을 기억한다'

마이 리틀 레드북

레이첼 카우더 네일버프 지음 | 박수연 옮김
사륙판 | 256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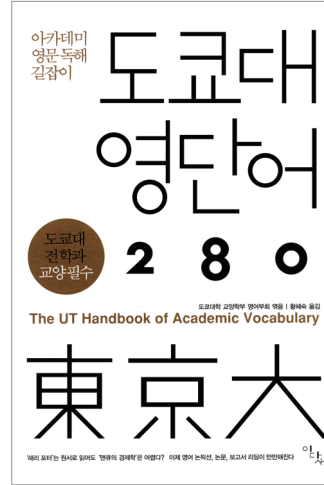
배꼽 빠지게 웃기고 찡했던 초경의 순간

모든 여성에게 건네는 유쾌하고 따뜻한 위로!

예일대 학생인 저자가 자신의 초경 해프닝을 토대로 주변의 경험담을 탐문해 엮은 100명의 초경 이야기. 10대 소녀에서 100세 할머니까지, 미국 뉴욕에서 케냐의 작은 마을까지, 100여 명의 여성이 자신의 초경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프린세스 다이어리』의 맥 캐봇, 영화 <사랑이 지나간 자리>의 원작자 재클린 미처드, 『호밀밭 파수꾼을 떠나며』의 조이스 케이너드 같은 유명 작가들의 솔직하고 유쾌한 고백도 눈여겨볼 만하다.

저자는 부모님과과의 관계, 문화적 정체성, 난처했던 경험 등을 통해 차별과 무지를 타파하고자 이 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이야기들로, 엄마와 딸,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읽어도 손색이 없을 성교육서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 ▶ 매혹적이고 풋풋한 에세이 모음집. 딸에게 사 주고 싶은 책. _시카고 트리뷴
- ▶ 독창적이면서도 보편적이고, 예술적이면서도 실용적이다. 여성이라면 누구든 이 책을 읽고 순수한 즐거움을 경험할 것이다. _뉴욕 타임스
- ▶ 가슴이 뵈다. 이 책을 만난 이들이 나눠 가질 위대하고 미스터리한 해방의 기쁨을 확신하기에. _목수정. 『아성의 사랑학』 『뽀속까지 자유롭고 치맛속까지 정치적인』 저자



아카데미 영문 독해 길잡이

도쿄대 영단어 280

도쿄대학 교양학부 영어부회 엮음 | 황혜숙 옮김
사륙판 | 456쪽 | 14,000원

「해리 포터」는 원서로 읽어도 「맨큐의 경제학」은 어렵다?

도쿄대학 교양학부 영어과 교수들이 가려 뽑은 영단어 길잡이

『도쿄대 영단어 280』은 도쿄대학 교양학부 영어과 교수들이 함께 쓴 영단어 책으로, 영어 원서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만 종종 잘못 해석되는 단어를 선별해 수준 높은 예문과 함께 설명을 곁들였다. 철학, 과학, 역사, 정치, 경제 분야 책은 물론이고 각종 논문, 보고서에서 뽑은 수준 높은 영어 문장이 독해의 눈을 넓혀 준다. 더불어 그간 단어의 쓰임을 정확히 알지 못해 생겼던 독해와 작문의 오류 문제, 그리고 원어민과의 소통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린다.

일본에서 출간 즉시 7만 부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현재 도쿄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교양 영어 수업의 교재로 쓰이고 있다. 또 업무상 영어를 자주 접하거나 써야 하는 전문직 종사자들과 일반인들의 필독서로 널리 읽히고 있다.

- ▶ 각 어휘는 정확한 쓰임과 용법을 따른다. 예문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지식을 담고 있다. 대학 교양영어는 물론, 영어 전공서적 독해도 도움이 된다. _파이낸셜뉴스

이
다
새

이 책은 도서출판 부키의 여학 학습 브랜드인 '이다새' 이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한 책과 저자

김환영 지음
신국판 변형 | 312쪽 | 1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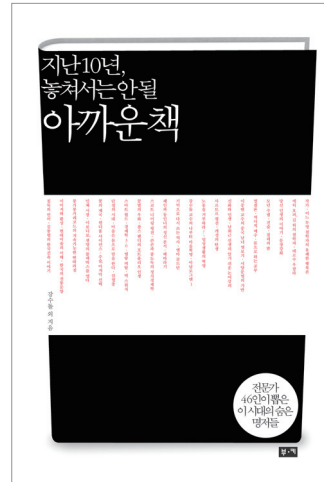
셰익스피어와 에릭 시걸, 세상은 누구를 더 주목했나? 토크쇼보다 흥미로운 책과 저자, 시대의 삼중주!

세상을 흔든 책과 그 책의 저자들, 그리고 그들의 시대를 조망한 책이다. 때로 영감의 원천이었고 때로 아이들의 꿈이었으며, 때로 누군가의 삶의 지침이거나 커다란 위로였으며 뒤흔친 이들에게는 혁명의 불씨가 되기도 했던 36권의 책과 그 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소개한다.

이 책에서 펼쳐지는 명저에 얽힌 이야기들은 토크쇼 못지않게 흥미롭고, 박학다식한 선배가 펼쳐 놓는 이야기처럼 재미있다. 그러나 단순히 책에 얽힌 소소한 뒷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책과 저자에 대한 배경지식이 결코 만만치 않다.

오천 년 전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우리 시대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와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까지 다양한 문제작들을 포괄한다. 책과 저자 그리고 시대가 함께 빛을 3중주의 선율, 즐거운 책담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오늘을 만든 묵중한 지식의 역사, 사유의 산맥과 마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 ▶ 전문가 독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 오늘의 세계를 만든 책과 저자들에 대한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 _중앙선데이
- ▶ 보다 풍요로운 독서를 가능하게 해 준다. _머니투데이



지난 10년, 놓쳐서는 안 될 아까운 책

강수돌 외 지음
신국판 변형 | 416쪽 | 14,800원

2011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2011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북리펀드 2011년 10월 선정도서

그 이름 불러 줄 때 비로소 살아나는 '아까운 책' 전문가 46인이 뽑은 이 시대의 숨은 명저들을 만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저들을 발굴, 조명하는 '아까운 책'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했지만, 내용과 의미는 '베스트'인 책.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숨은 걸작을 골라 서평과 함께 소개한다.

『지난 10년, 놓쳐서는 안 될 아까운 책』은 매해 출간될 '아까운 책' 시리즈의 첫 결실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1세기의 첫 10년을 결산했다. 강수돌, 강신주, 우석훈, 듀나, 장석주, 정혜윤, 홍기빈, 하지현 등 이 시대의 '글쟁이' 46명이 필진으로 참여해 문학, 인문, 사회, 경제·경영, 과학, 문화·예술 등 6개 분야의 추천서를 소개하고 '함께 읽으면 좋은 책'도 안내한다.

- ▶ 책벌레들이 추천한 '진짜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며 왠지 모를 감증을 느꼈던 독자들에게 시원한 해갈이 되어 줄 만한 책이다. _한국일보
- ▶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의 법칙이 어김없이 적용되어 온 책 시장에서 보기 드문 기획이다. _한겨레
- ▶ 여기 수록된 책들은 숨 가쁘게 달려 온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사회적 맥락을 짚어 준다. 서평을 따라가다 보면 21세기를 맞아 우리 사회가 겪었던 크고 작은 변화와 시대의 고민이 한눈에 들어온다. _서울경제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

이상림 외 16인 지음
신국판 | 222쪽 | 9,500원



17인의 건축가가 자신의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건축가 생활 보고서. 좌충우돌 새내기 건축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공공 건축가, 주택 건축가, 상업공간 건축가, 한옥 건축가와 한국 현대 건축의 선두주자이자 세계적 건축가인 고 김수근이 설립한 건축사무소 '공간'의 현 대표 이상림 건축가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속내와 건축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펼쳐 놓았다. 또 도시 계획과 도시 설계, 구조 설계, 조경, 건축 CM에 이르는 더 넓은 건축가의 세계와 건축 유학, 건축 저널 등 건축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빠짐없이 담고 있다.

2012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청소년 권장도서
2011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북리펀드 2011년 7월 선정도서

출판편집자가 말하는 편집자

정은숙 외 22인 지음
신국판 | 256쪽 | 9,500원



1년을 갓 넘긴 초짜부터 출판사를 창업한 25년 차 베테랑까지, 또 문학, 인문, 예술, 경제경영, 실용, 어린이·교육 분야를 비롯해 학습, 어린이 학습만화, 대학출판부까지 여러 분야에서 책을 만드는 출판편집자 23인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고 있다. 편집자의 개성이 어떻게 저자의 원고와 어우러져 책에 반영되는지, 책 만드는 일이 장르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획 디자인 제작 홍보 등 책 전반에 관여하는 편집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 준다. 책 말미의 '15문 15답'에는 출판사 면접의 특성, 포트폴리오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구체적인 도움말이 담겨 있다.

2012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 청소년 권장도서 | 2011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도서
북리펀드 2011년 7월 선정도서 | 2007 아침독서 추천도서
2006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 2004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2004 책따세 선정 겨울방학 추천도서 | 2004 출판인회의 선정 이달의 좋은 책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

그 일, 정말 할 만합니까? 각 전문직 종사자들이 전하는 직업의 세계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실상은 어떤지, 어려움과 보람은 무엇인지, 대우는 어느 정도인지, 미래 가치는 어떤지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살핀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전문성으로 무장한 '직업인'만이 살아남는 시대, 진로를 고민하는 이 땅의 청소년과 대학생, 예비 사회인, 진로 지도에 고심하는 선생님과 학부모 들에게 직업의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해 정말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인지 미리 가늠해 보는 잣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2003년 12월 『PD가 말하는 PD』를 시작으로 기자, 의사, 간호사, 디자이너, 요리사, 방송작가, 항공승무원, 광고인, 건축가 등 현재까지 총 14권이 출간되었다.

- ▶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쓴 직업 이야기. **세계일보**
- ▶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 주는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 **연합뉴스**



광고인이 말하는 광고인

국정애 외 19인 지음 | 신국판 | 272쪽 | 9,500원



아름답고 멋진 모델, 온종일 컷가에 맴도는 음악,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떠오르는 문장. 짧은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광고를 흔히 '자본주의의 꽃', '15초의 예술'이라고 한다. 이처럼 매력적인 광고를 만드는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책은 광고의 화려함 뒤에 숨어 '크리에이티브'에 목숨을 거는 광고인의 다양한 세계를 한눈에 보여 준다. 또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광고의 생생하고 흥미로운 뒷이야기는 광고인이라는 직업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이 밖에 광고 제작 후기와 프레젠테이션 체험기, 궁금증 14문 14답 등은 광고인이 되려는 이들에게 선배 광고인들이 들려주는 값진 조언이다.

스튜어디스· 스튜어드가 말하는 항공 승무원

원해경 외 11인 지음 | 신국판 | 212쪽 | 9,500원



스튜어디스·스튜어드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오늘의 항공 승무원 생활 보고서. 객실 승무원, 객실 팀장 등 우리에게 익숙한 분야는 물론이고, 외국 항공, 지역 민영 항공, 항공 훈련원, 승무원 양성 학원 등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야에서 일하는 항공 승무원들까지 참여하여 항공 승무원의 취업 과정, 보수와 전망 등 실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현장 정보를 생생하게 전한다. 단정하고 세련된 이들이지만 그런 모습 뒤에서는 무거운 기내 물품을 나르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청소부도 때로는 응급요원으로 변신해야 한다.

방송작가가 말하는 방송작가

이정란 외 16인 지음 | 신국판 | 231쪽 | 9,500원



지상파, 케이블, DMB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는 방송작가들이 등장한다. PD가 빨간 사인펜으로 자신의 원고에 줄을 짚쪽 긋는 걸 보며 자존심 상했던 새끼 작가 시절을 털어 놓기도 하고, '못생기고, 혼자 살고, 담배 피운다.'는 PD들 사이에 회자되는 드라마 작가의 조건을 들려주기도 한다. 몰래 카메라를 들고 사이비 종교 집단에 잠입하기도 하고, 원하는 그 장면을 얻기 위해 특정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한 없이 기다리기도 한다. 기획, 구성과 대본 쓰기는 물론이고 연예인 섭외까지 해야 하는 작가는 '작가'가 아니라 '잡가'라고 주장하는 버라이어티쇼 작가도 있다.

만화가가 말하는 만화가

송상훈 외 16인 지음 | 신국판 | 256쪽 | 9,500원



순정, 학습, 소년, 성인, 생활 만화 등 전통적인 만화 분야는 물론이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넷 만화, 언더그라운드 만화, 시사만화 등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야의 만화가들이 자신의 일과 생활, 보람과 애환을 시종일관 흥미진진하면서도 진지하게 전한다. 또 스토리 작가, 만화 편집자, 만화 평론가 등도 필자로 참여해 더 넓은 만화가의 세계를 보여 준다.

판사·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임수빈 외 15인 지음 | 신국판 | 232쪽 | 9,500원



예비 판사, 형사합의부 및 민사합의부 판사, 형사부와 첨단 범죄수사부 검사, 교통, 의료, 특허, 노동,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철저하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각 분야 법조인의 삶을 알려 준다. 또 기업 소속 변호사, 행정부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 변호사, 미국 변호사 등도 필자로 참여해 더 넓은 법조인의 세계를 보여 준다. 사법연수원 생활도 엿볼 수 있다.

요리사가 말하는 요리사

한영용 외 14인 지음 | 신국판 | 224쪽 | 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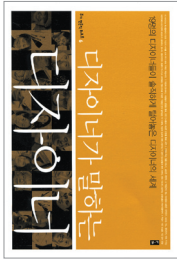


한식, 일식, 중식,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등 가장 대표적인 요리 분야는 물론이고 외식 업체 메뉴 개발, 푸드 코디네이션, 식당간 연출, 약선 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요리사들이 필자로 참여했다. 또 제과제빵 분야, 소믈리에 등 관련 분야의 필자들도 자신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전한다. 이들이 일하는 공간 역시 호텔, 전문 요리점, 패밀리 레스토랑, 방송사 등 천차만별이다.

2006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디자이너가 말하는 디자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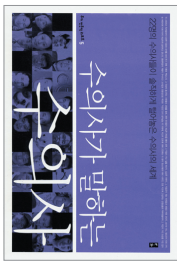
최광우 외 18인 지음 | 신국판 | 284쪽 | 9,500원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등장해 디자이너의 세계를 보여 준다.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는 CI/BI 디자이너, 광고 아트 디렉터, 북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가,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는 문구 소품 디자이너와 라이프스타일 디자이너가,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전시 기획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가, 의상 디자인 분야에서는 프로모션 디자이너와 인하우스 디자이너, 자가 브랜드 디자이너(시장 디자이너) 등이 필자로 참여했다.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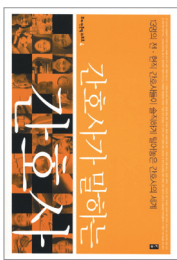
양효진 외 21인 | 신국판 | 336쪽 | 9,500원



평범한 수의사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오늘의 수의사 생활 보고서. 흔히 알려져 있는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소동물) 진료는 물론이고 소, 닭, 말 등 산업동물(대동물) 진료, 검역, 수의 축산 정책, 공중 보건, 동물 약품 개발, 전염병 연구, 마케팅, 야생동물 진료 및 연구에 이르기까지 일반인들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수의사들이 철저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일과 생활, 보람과 애환을 그려 낸다.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권혜림 외 13인 지음 | 신국판 | 204쪽 | 9,500원



응급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중환자실, 일반 병동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물론이고 이룸도 생소한 언더라이터, 의료 소송 매니저, 항공 전문 간호사, 미국 간호사, 호스피스, 남자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다양한 분야의 간호사들이 그들의 일과 생활, 보람과 애환에 대해 가감 없이 증계하듯 전달하고 있다. 개인병원, 중소병원, 종합병원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그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적인 간호 업무와 현장에서 부딪치며 겪는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이야기해 독자들과의 이해를 돕는다.

의사가 말하는 의사

김선 외 19인 지음 | 신국판 | 256쪽 | 9,500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는 물론이고 정신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사들이 필자로 참여했다. 또 섬 진료를 담당했던 일반 의사와 의료 전문 기자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의사들의 이야기와 의대생, 공중보건의, 인턴, 전공의(레지던트), 전문의를 망라하고, 개원의부터 봉직의를 아울러 다양한 입장의 의사들의 이야기를 실어 독자들과의 이해를 돕는다.

2007 아침독서 추천도서 | 2004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2004 책따세 선정 겨울방학 추천도서

기자가 말하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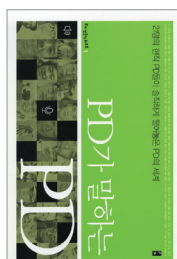
임영주 외 25인 지음 | 신국판 | 318쪽 | 9,500원



신문, 방송, 통신은 물론 새로이 부상하는 인터넷 매체를 고루 조망했다. 아마, 나와바리, 사스마와리 등 기자들이 쓰는 독특한 말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과 폭탄주, 노동강도, 보수, 사람관리 등 기자를 이해하는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 기자 생활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신문사 편집국 문화 변천사와 역사 속의 기자를 통해 기자 역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언론사의 인재 채용 경향과 함께 스케치 기사, 논술, 작문, 집단 면접에 대한 선배들의 조언 등 기자를 지망하는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를 함께 신고 있다.

PD가 말하는 PD

김민식 외 21인 지음 | 신국판 | 317쪽 | 9,500원



매체별로 TV와 라디오를 아우르고, 분야별로 자연다큐멘터리, 문화다큐멘터리, 영화, 코미디, 만화, 토크쇼, 비디오저널 리스트, 라디오 교양, 라디오 음악, 민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PD들이 그들의 일, 생활, 보람, 어려움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 또 콘텐츠 PD, 외화 PD, 프리랜서 PD 등 최근 방송계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PD 직군의 이야기도 함께 실어, 천태만상 천차만별인 PD의 세계에 대한 독자들과의 이해를 돕는다.

2007 아침독서 추천도서 | 2004 책따세 선정 겨울방학 추천도서



문제 풀이가 일 대 일 수업보다 더 친절하다!

꼼지샘의 친절한 수학

중3-하

나숙자 지음
신국판 변형 | 399쪽 내외 | 14,000원



문제 풀이가 일 대 일 수업보다 더 친절하다!

꼼지샘의 친절한 수학

중1-상·하, 중2-상·하, 중3-상

나숙자 지음
신국판 변형 | 각 권 400쪽 내외 | 각 권 14,000원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어 주는 꼼지샘 나숙자 선생님

꼼지샘은 전남대학교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나와 26년 동안 노화중, 성전중, 구로중, 구일중, 백석중, 성재중, 강신중 등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나숙자 선생님의 평소 지론이 '수학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인데, 이는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 '1/2+1/3=1/5'이라고 부덕부덕 우기는가 하면,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 학교에 남아 있어야 했던 아픈 기억 때문일 것이다.

꼼지샘은 학생들이 수학과 친근해지도록 수학 시 짓기, 수학 만화 그리기, 수학 일기 쓰기, 수학 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으며, 방과 후 학교에 '학부모 수학 교실'을 운영하여 학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꼼지샘에게 배운 학생들 가운데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유난히 많은 것도 모두 이런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꼼지샘은 수학 교육의 새로운 시도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수학 교육 전공으로 석사를 받았으며, 퇴직 후에도 가르쳤던 학생 및 학부모들과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고 있다.

차례

중3 하권 V 통계 | VI 피타고라스의 정리 | VII 삼각비 | VIII 원의 성질 | 정답 및 풀이



개념도 알고 원리도 이해한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한다고요?

수학의 기초 체력 단련은 개념 파악과 원리 이해에 있는데,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꼼지샘의 친절한 수학』은 문제집인데도 개념과 원리에 대해 중간중간 계속해서 일깨워 줍니다.

문제 유형을 조금만 바뀌어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요? 바로 그래서 수학 문제집은 문제보다 문제 풀이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꼼지샘의 친절한 수학』은 “이건 알지?”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이를 건너뛰지 않으니 모르는 과정을 확실히 익힐 수 있는 것이고요.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꼼지샘의 친절한 수학』의 다양한 연습 문제를 접하다 보면 난이도 높은 문제에도 어느덧 익숙해지게 되니까요.

중1 상권 I 집합 | II 자연수 | III 정수와 유리수 | IV 문자와 식 | V 함수 | 정답 및 풀이

중1 하권 VI 통계 | VII 기본 도형 | VIII 작도와 합동 | IX 평면도형의 성질 | X 입체도형의 성질 | 정답 및 풀이

중2 상권 I 유리수와 근삿값 | II 식의 계산 | III 연립방정식 | IV 부등식 | V 이차함수 | 정답 및 풀이

중2 하권 VI 확률 | VII 삼각형의 성질 | VIII 사각형의 성질 | IX 도형의 답음 | 정답 및 풀이

중3 상권 I 실수와 그 계산 | II 식의 계산 | III 이차방정식 | IV 이차함수 | 정답 및 풀이 | 재검교표



수학에서 '통합 논술'의 기초까지

친절한 도형 교과서

① ② ③

나속자 지음 | 신상희 그림
신국판 | 각 권 270쪽 내외 | 각 권 11,000원



수학을 잘하고 싶은 중딩들을 위한

친절한 수학 교과서

① ② ③

나속자 지음 | 신상희 그림
신국판 | 각 권 250쪽 내외 | 각 권 9,800원

단순한 도형 문제를 넘어서 기하학의 기초로 통합 논술의 논리적 사고를 다진다!

설명이 과외 교사보다 자세한 데다 유머러스하기까지 해서 수학의 개념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해 준다고 정평이 난 『친절한 수학 교과서』의 '도형' 편. 이 책만 있으면 바쁜 선생님 붙잡고 늘어지지 않아도, 상위 20퍼센트만을 향해 강의를 진행하는 학원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도형을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단순한 도형 문제의 풀이가 아니라 기하학적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통합 논술'의 기초인 논리적 사고를 다지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 ▶ 내가 뒤늦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를 다시 보겠다는 용기를 낸 것은 분명 행운이었다. _이정모, 과학평론가
- ▶ '기하학', 즉 도형이라는 전문 지식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통해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재치 있게 전달하고 있다. _안성용, 1318class.com 대표
- ▶ 정의와 공리에 따라 결론을 유추해 내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 기하학 학습의 진정한 목표다. _박중백, 지멘스 연구소장·전기컴퓨터공학 박사

1권·도형의 기초 1 기하 입문 | 2 정리와 증명 | 3 점·선·면 | 4 도형의 기초

2권·도형의 성질과 닮음 1 도형의 측정 | 2 형의 성질 | 3 도형의 닮음

3권·피타고라스와 원 1 피타고라스의 정리 | 2 원 | 3 삼각비

엄마와 아이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수학책 수학에 대한 고민, 이제 속 시원히 풀어 준다!

23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수학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수학 교사의 수업 시간을 그대로 옮겨 놓은 책. 아이들 눈높이에서 수학의 원리와 기초 개념을 설명하면서 수학과 관련된 역사적 에피소드나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생생한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 책은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 갖고 있는 '재미 없고 따분한 과목'이라는 거부감을 없애 주는 것은 물론, 수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이고 얼마나 유용한지 바로 '감'이 오게끔 해 준다.

- ▶ 이야기하듯이 풀어 가는 수학 해설. _한겨레
- ▶ 친근한 대화를 통해 수학의 원리와 개념을 제시. _서울신문
- ▶ 수학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책. _서울경제

1권·집합과 수 0장 수학, 누구나 잘할 수 있다! | 1장 집합 | 2장 자연수 | 3장 정수와 유리수 | 4장 십진법과 이진법 | 5장 제곱근과 실수 | 6장 근사값 | 아름다운 수학 세상을 향한 여행을 마치며

2권·식과 함수 0장 수학, 누구나 잘할 수 있다! | 1장 문자와 식 | 2장 일차방정식과 일차부등식 | 3장 인수분해와 이차방정식 | 4장 일차함수 | 5장 이차함수 | 아름다운 수학 세상을 향한 여행을 마치며

3권·통계와 확률 1장 통계_자료의 정리와 관찰 | 2장 통계_상관관계 | 3장 확률



세계를 움직인 과학의 고전들

가마타 히로키 지음 | 정숙영 옮김 | 이정모 감수
신국판 변형 | 256쪽 | 12,000원

2011 과학기술부 인증 우수과학도서
2011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2010 책따세 선정 겨울방학 청소년 권장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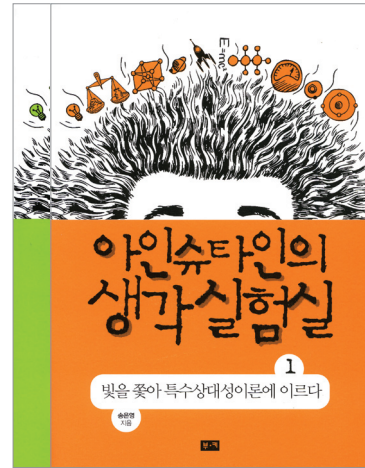
인간을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한 14권의 과학책

교토대 학생들이 뽑은 '가장 수업 받고 싶은 교수' 1위에 빛나는 가마타 히로키가 14권의 과학 고전을 엄선하여 소개하고 있다. 갈릴레오의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로부터 다윈의 『종의 기원』, 카슨의 『침묵의 봄』, 그리고 왓슨의 『이중나선』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본질과 내용을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저자 자신의 과학 고전 탐독기라 할 수 있는 열네 편의 칼럼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에 대한 소개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책은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또 위대한 과학자들의 청춘은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 과학책의 핵심 내용, 해당 과학자의 열정과 에피소드, 세상에 미친 영향 등을 담백하게 정리했다. 친절하다. _조선일보
- ▶ 중요한 책들만 골라 뽑아 내용을 일러 주고 그 배경까지 소개해 주는 이 책이 더없이 반갑다. _매일경제



아인슈타인의 생각 실험실 ①②

- ① 빛을 쫓아 특수상대성이론에 이른다
- ② 엘리베이터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을 만나다

송은영 지음
신국판 변형 | 각 권 260쪽 내외 | 각 권 11,000원

2010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2010 과학창의재단 우수과학도서
2010 포스코교육재단 학부모 권장도서
2011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상대성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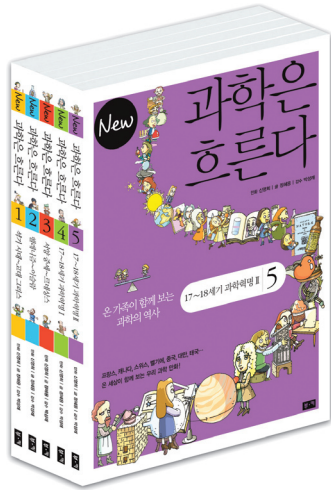
"이 세상 모든 것은 더 이상 걷어 낼 게 없을 때까지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아인슈타인의 생각 실험실』은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을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최대한 단순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울렁증을 일으키는 수학식은 가능한 한 줄이고, 약간의 물리 상식과 중학교 졸업생 수준의 수학 실력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설명했다.

- ▶ 수학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책. _서울경제
- ▶ 이야기하듯이 풀어 가는 수학 해설. _한겨레

1권 · 빛을 쫓아 특수상대성이론에 이른다 머리말 | 1장 상대성이론의 매력 | 2장 상대와 절대 | 3장 빛이 낳은 딜레마 | 4장 특수상대성이론 탄생 전야 | 5장 특수상대성이론의 탄생 | 6장 특수상대성이론 들어가기 | 7장 4차원과 광속 저 너머 | 부록 · 아인슈타인의 생애 | 참고 도서 | 찾아보기

2권 · 엘리베이터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을 만나다 머리말 | 1장 미진한 아쉬움이 절실한 꿈으로 | 2장 우주선, 관성력 그리고 엘리베이터 | 3장 아인슈타인 엘리베이터와 등가원리 | 4장 힘겨웠지만 운이 따랐던 시기 | 5장 중력과 빛의 휨 | 6장 중력과 공간 | 7장 일식과 빛의 휨 측정 | 8장 중력렌즈 | 9장 아인슈타인 편지 | 10장 수성의 장미꽃형 궤도 | 부록 · 아인슈타인의 생애 | 참고 도서 | 찾아보기



New 과학은 흐른다 (전5권)

글 정혜용 | 만화 신영희 | 감수 박성래
사륙배판 | 각 권 200쪽 내외 | 각 권 12,000원

2011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문화콘텐츠진흥원 선정 우수기획 실용 만화
전국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추천 만화
2005 과학기술부 선정 우수과학도서

우리가 만들고 온 세계가 즐기는 역사 속 과학의 현장!

과학의 발전을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 살펴본 시리즈. 시대와 분야에 따른 기초과학의 역사를 석기시대부터 17~18세기 과학혁명까지 알차게 모았다. 어렵게 여기기 쉬운 과학 이론을 세밀한 도판, 친근한 만화로 풀이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꼼꼼하고 체계적인 구성, 전문가의 감수로 완성도를 높였다.

2005년 출간되어 우수 과학 만화로 자리 잡은 『과학은 흐른다』의 개정판으로,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중국, 대만, 시리아,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어 전 세계가 함께 읽고 있다.

- 1권 석기 시대~고대 그리스
- 2권 헬레니즘~이슬람
- 3권 서양 중세~르네상스
- 4권 17~18세기 과학혁명 I
- 5권 17~18세기 과학혁명 II

다윈은 세상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1859년의 과학과 기술

피터 매시니스 지음 | 석기용 옮김
신국판 | 416쪽 | 16,000원



요리로 만나는 과학 교과서

엄마와 두 딸의 흥미진진 과학 수다

이영미 외 지음
신국판 | 280쪽 | 9,800원



『종의 기원』이 나온 것은 1859년 11월

하지만 그해 첫날부터 세상은 거대한 변화에 휩싸였다! 찰스 다윈은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인 1859년 11월 24일에 『종의 기원』을 출간했다. 저자는 이 역사적인 해에 일어난 일들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종의 기원』이 나왔기 때문에 1859년이 의미 있는 해가 된 것이 아니라 1859년과 그 전후에 걸쳐 붓물 터지듯이 일어난 큰 변화가 『종의 기원』을 낳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종의 기원』은 단지 1859년이 이룩한 수많은 혁신 중 하나일 뿐이었다.

▶ 이 책에는 작지만 쓸쓸한 재미를 주는 신기하고 흥미로운 사람과 사건들이 가득하다. 아침 일찍 신문을 들고 들어와 막 펼쳐보려 하는 신문 애독자의 마음으로, 독자들은 1859년에 서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지 책장을 넘겨가며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_옮긴이의 말 중에서

요리와 과학, 수다와 학습의 행복한 동행 우리 집 주방이 과학 실험실로 변했어요!

현직 과학 교사인 엄마가 주방에서 두 딸과 함께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재료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요리를 만들면서 중학교 과학 교과 과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기초 과학 입문서.

시금치, 밀가루, 식초 등 어느 집이나 있는 재료를 이용한 과학 실험까지 실린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주방이 '문턱 낮은 실험실'로 변신한다.

2005 서울시교육청 선정 추천도서
2004 책따세 선정 겨울방학 추천도서
2004 과학기술부 선정 우수과학도서
2004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전 세계 SF 독자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필립 리브의 견인 도시 연대기 4부작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 감독, 영화화 결정!

핵전쟁으로 추정되는 '60분 전쟁'은 문명을 파괴하고 지구에 거대한 지질학적 변동을 초래했다.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는 생존을 위한 대안으로 '도시진화론'을 받아들인다. 도시진화론은 '견인 도시', 즉 거대한 바퀴와 모터에 의지해 움직이는 도시를 만들고 강한 도시가 약한 도시를 잡아먹으며 생존하는 일종의 '악육강식' 시스템. 이에 따라 온갖 견인 도시가 만들어져 지구를 배회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지구가 다시 안정된 후에도 '견인 도시주의자'들은 도시진화론을 맹신하며 이동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견인 도시 시스템이 지구를 파괴한다고 믿는 '반 견인 도시주의자'들이 연맹을 조직해 그들과 대립하는데...

- ▶ 스틸러를, 성장 소설 그리고 사회 소설로도 읽히는 다양한 얼굴의 SF다. 블록버스터 영화 못지않은 긴박감을 자아내는 동시에 심리 묘사가 눈길을 끈다. **_중앙일보**
- ▶ 필립 리브는 가히 SF 어드벤처계의 디킨스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_가디언**
- ▶ 필립 리브의 복잡다단한 상상의 세계는 해리 포터의 마법 세계마저 단순해 보이게 할 정도다. **_인디펜던트**

2002 네슬레 스마트즈 어워드 금상 수상 | 2003 BBC 블루피터북 선정 올해의 책
2004 웹카운티 선정 '꼭 읽어야 할 SF 걸작'
영국서점연합회 선정 '2004 최고의 SF 소설' | 미국도서관협회 선정 '2005 최고의 장르소설'
2007 일본 SF대상 성운상(星雲賞) 해외장편부문 상 수상

견인 도시 연대기 4 황혼의 들판

신국판 변형 | 656쪽 | 15,000원



TE 1000년, 움직이는 도시들이 온다!
견인 도시 연대기 4부작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 영화화 결정

지구 종말 이후 벌어지는 초특급 판타지 SF 어드벤처 필립 리브의 '견인 도시 연대기' 완결편!

그린 스톰의 공격을 받고 추락한 공중 저택 클라우드 다인에서 탈출한 톰과 렌, 그리고 사막으로 떨어진 헤스터와 스토커 슈라이크의 6개월 뒤 이야기.

그린 스톰의 총사령관 나가의 평화 정책으로 세계는 잠시 휴전 상태에 들어가지만, 한편에서는 아직도 전쟁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전투 도시 무르나우로 속속 모여드는 도시들의 움직임 또한 매우 수상쩍다. 지구는 또 한 번 대규모 전쟁과 멸망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견인 도시 연대기 3 악마의 무기

신국판 변형 | 464쪽 | 12,000원



피터 잭슨 감독, 영화화 결정
2002 네슬레 스마트즈 어워드 금상 수상
영국서점연합회 선정 '2004 최고의 SF 소설'
미국도서관협회 선정 '2005 최고의 장르소설'

견인 도시 연대기 2 사냥꾼의 현상금

신국판 변형 | 448쪽 | 12,000원



모탈 엔진, 이면의 얼굴 도시 캠퍼리제다
* 2002 네슬레 스마트즈 어워드 금상 수상
* 영국서점연합회 선정 '2004 최고의 SF 소설'
* 미국도서관협회 선정 '2005 최고의 장르소설'

'틴 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바다 위의 모험과 로맨스

앵커리지에서 결혼을 한 톰과 헤스터. 그들에게 이제 열다섯 살이 된 딸 렌이 있다. 어느 날 기생 해적 로스트 보이들이 전쟁을 종식시킬 가공할 무기에 대한 정보가 쓰여 있다는 '틴 북'을 찾기 위해 앵커리지로 숨어든다. 틴 북과 함께 납치된 렌, 딸을 찾아 나선 톰과 헤스터, 틴 북을 탐내는 노예 상인 슈킨과 시장 페니로알, 그린 스톰의 사령관 팽, 헤스터를 찾아다니는 슈라이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와 숨 가쁜 모험이 펼쳐진다.

빙하와 바다를 넘나들며 펼쳐지는 질투와 배신 그리고 전쟁

견인 도시 런던이 '반 견인 도시' 세력을 무릎 꿇리려다 멸망하고 약 2년 후, 대파국의 소송돌이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톰과 헤스터는 '앵커리지'라는 썰매 도시에 도착한다. 톰이 아름다운 십 대 여왕 프레아에게 잠시 마음이 흔들리자 헤스터는 사냥꾼 도시 아크에인절로 가 앵커리지의 소재를 밀고한다. 허풍선이 역사학자 페니로알, 베일에 싸인 미스터리 집단 '로스트 보이', 그리고 외딴 섬 로그스 루스트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런 실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전개, 두 주인공의 복잡한 내면세계 묘사가 결합되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견인 도시 연대기 1 모탈 엔진

신국판 변형 | 436쪽 | 12,000원



연지의 제왕 피터 잭슨 감독, 영화화 결정!
* 2002 네슬레 스마트즈 어워드 금상 수상
* 2002년 BBC 블루피터북 선정 올해의 책
* 2003년 미국 도서관협회 선정 '2004 최고의 SF 소설'
* 2003년 일본 SF대상 성운상(星雲賞) 해외장편부문 상 수상

롤러코스터처럼 질주하는 상상력과 거대한 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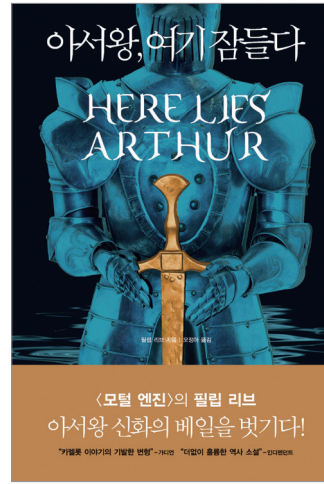
더럽고 위험한 내장 갑판엔 하층 계급과 범죄자가 살고 쾌적하고 부유한 상층 갑판엔 고위직이 사는 철저한 계급 사회 런던. 열다섯 살의 고아 소년 톰 내츠워드는 역사학자 길드의 3등 견승생이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우상이자 역사학자 길드 회장인 테데우스 벨런타인을 돕다가 일그러진 얼굴의 소녀 헤스터 쇼를 만나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헤스터와 함께 런던 밖으로 떨어지게 된다.



우리 학교가 달라졌어요

‘좋은 학교’를 향한 1년 6개월의 분투기

후지하라 가즈히로 지음 | 전선영 옮김
신국판 변형 | 244쪽 | 12,000원



아서왕, 여기 잠들다

필립 리브 지음 | 오정아 옮김
신국판 변형 | 383쪽 | 12,000원

북리펀드 2010년 11월 선정도서
2008 카네기 메달 수상
2007 네슬레 스마티즈 어워드 통상 수상

교육 현장에 평론가는 필요 없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이 함께 만드는 공립학교 이야기

2003년 도쿄의 스키나마 구립 와다 중학교에 도내 최초의 민간인 출신 교장으로 취임한 이는 비즈니스맨으로 맹활약해 온 후지하라. 세 아이의 아버지인 그는 교장 취임 이후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본부, 맞춤형 과외 ‘토요 글방’, 입시학원과 제휴한 ‘방과 후 수업’ 등 갖가지 노력을 기울여 폐쇄 위기에 처했던 와다 중학교를 학력 1위 학교로 변모시킴으로써 일본 전역에 ‘와다 중학교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바라 마지않는 공교육의 부활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후지하라 교장이 와다 중학교 개혁에 뛰어든 처음 1년 6개월의 생생한 기록을 모은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님을, 아니 오히려 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 가즈히로 교장에 따르면 ‘학력’이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수업만이 아니라 모든 활동이 학력을 높인다. 와다 중학교의 특별한 프로그램엔 이런 교육 철학이 담겨 있다. 여장(女装)하는 남성을 수업 시간에 초청해 ‘차별’을 주제로 토론하게 하고, 사회학자를 초청해 ‘자살’을 주제로 한 역할극과 토론까지 하게 하는 대목은 과감하다 못해 파격적이다. _중앙일보

SF의 대가 필립 리브, 아서왕 신화의 베일을 벗기다!

당신이 한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서왕을 만난다

서기 500년경,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난 브리튼은 여러 개의 작은 왕국으로 분열된 가운데 야만인 색슨족의 침략에 시달린다. 브리튼 남서부에 사는 노예 소녀 그위나는 한 밤중에 몰아닥친 아서 부대의 습격을 피해 달아나다 마르딘에게 구출된다. 하지만 알고 보니 마르딘은 아서의 음유시인이자 책사로, 아서가 브리튼을 통일하도록 앞장서 돕는 인물이다. 마르딘은 그위나를 이용해 ‘호수의 여인’이 아서에게 명검 ‘칼리번’을 건네준 것처럼 꾸미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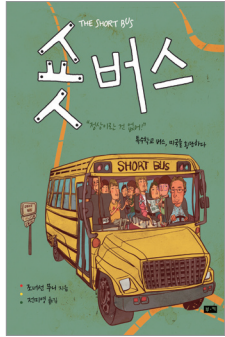
아서왕 신화의 마법과 환상을 걷어 내고 현실에 기반을 둔 역사 소설.

- ▶ 숨 가쁘게 책장을 넘기게 만드는 모험담이자, 영리한 역사 소설이다. _카네기 메달 심사평
- ▶ 저자 리브는 우리가 믿는 진실이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꼬집는다. 이 때문에 이 작품은 출간 당시 영국의 현실 정치에 대한 풍자로 읽히기도 했다. _파이낸셜뉴스

푸르메 책꽂이 3
숏버스

특수학교 버스, 미국을 횡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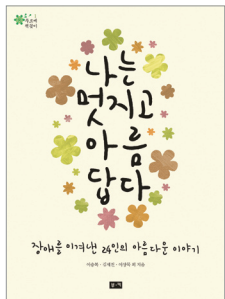
조너선 무니 지음 | 전미영 옮김
 신국판 변형 | 400쪽 | 13,500원



북리펀드 2011년 4월 선정도서

푸르메 책꽂이 1
**나는 멋지고
 아름답다**
 장애를 이겨 낸 24인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승복 · 김세진 · 이상목 외 지음
 신국판 변형 | 272쪽 | 11,000원



장애를 극복한 아이비리그 졸업생, 다시 숏버스에 오르다
 읽기장애를 극복하고 명문 브라운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저자가 숏버스를 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며 '비정상' 딱지가 붙은 사람들을 만난다. 자신은 여전히 '정상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괴로운데 그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알기 위해서다.

학습장애 소년, 여자가 되고 싶은 어부 화가, 시청각 중복장애 소녀, 다운증후군 처녀 등을 만나면서 지은이는 '과연 사람들이 규정하는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남과 다른 나, 나와 다른 남을 받아들이는 소통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꿈을 향해 달려 나가는 순간,
 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병원 재활의사가 된 '슈퍼맨' 이승복 박사, 올림픽을 목표로 새벽부터 물살을 가르는 로봇다리 세진이, '한국의 스티븐 호킹' 서울대 이상목 교수, 세계 4대 극한 마라톤을 모두 완주한 시각장애 마라토너 송경태 씨 등 장애를 딛고 각 분야에서 성공한 24명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장애를 인정하되 그 안에 머물지 않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 나갔다. 오히려 장애 '덕분'에 꿈과 인생의 의미를 찾은 사람도 있다. 노력 끝에 꿈을 이뤄 낸 이들은 수많은 장애인에게 희망이 되었다. 『나는 멋지고 아름답다』는 이들이 건넨 희망의 메시지이다.

2011 학교도서관저널 도서추천위원회 추천도서
 2010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딸과 함께 읽는 미셸 오바마 이야기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데이비드 콜버트 지음 | 박수연 옮김
 신국판 변형 | 200쪽 |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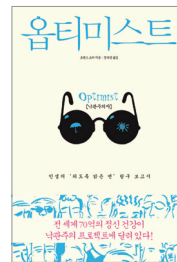
쉿, 조용히!

스콧 더글러스 지음 | 박수연 옮김
 신국판 | 424쪽 | 13,500원



옵티미스트

로렌스 쇼터 지음 | 정숙영 옮김
 신국판 | 444쪽 | 13,500원



열정과 용기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한 이 시대의 퍼스트레이디
 미국 첫 흑인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는 대개 멋진 패션으로 언론에 많이 소개되지만 그녀의 당당함은 의외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셸이 살아온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시대 최고의 여성 역할 모델로서 그녀가 내면에 지닌 당당함을 발견하게 된다. 흑인 노예의 후손으로 시카고 서민층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난 그녀는 흑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차별과 어려움을 끝없는 도전으로 넘어섰고 프린스턴과 하버드 로스쿨, 일류 법률 회사에 들어가는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미셸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열정을 좇아 사회봉사에 뛰어들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도전하는 한 역사적인 여성에 관한 전기(傳記).

북리펀드 2009년 7월 선정 도서

시트콤보다 더 웃긴 요절복통 도서관 이야기

도서관 사서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경쾌한 필체로 풀어낸 에세이. 웃내기 사서인 저자는 단순히 책을 좋아하는 것과 사서의 일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직업에 끊임없이 회의한다. 그러면서도 도서관에서 만난 노인, 아이, 노숙자들을 통해 삶에 대해 배우고 도서관의 의미와 사서의 역할을 고민한다. 하지만 도서관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도 사람 사는 일은 다 똑같다. 저자에게 일어나는 어처구니없고 유쾌하며 때로는 감동적인 사건들을 읽으며 우리는 저자에게 공감하는 동시에,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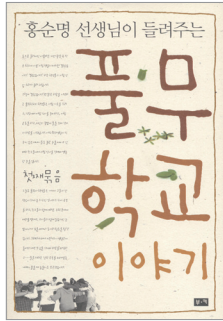
▶ 시시콜콜한 재미와 몽글한 감동이 공존하는 이 책은 사서들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_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내가 무기력한 건 나쁜 뉴스 때문이야!'

세계적인 명문 대학(케임브리지)을 졸업하고 MBA까지 딴 데다 한때는 경영 컨설턴트로도 일한 '엄친아' 같은 젊은이가, 늦은 아침 침대에서 툭툭하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 그러다 BBC 라디오 뉴스를 듣고는 무릎을 친다. '맞아!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건 나쁜 뉴스 때문이야!' 기후 온난화, 테러, 기아, 에너지 위기... 신문이면 신문, 텔레비전이면 텔레비전, 모두 우울하고 불안한 소식만 전한다.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나쁘기만 한 것일까. 인생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 낙관주의자들을 인터뷰하고 책을 쓰자. 이렇게 하여 '낙관주의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2010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3월 이달의 읽을 만한 책

홍순명 선생님이 들려주는 풀무학교 이야기

홍순명 지음
신국판 | 272쪽 | 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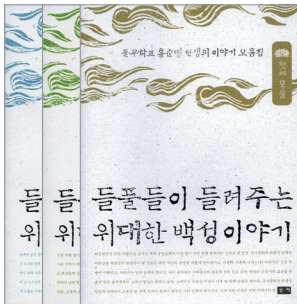
학교가 마을이고 마을이 곧 학교인 풀무학교 이야기

풀무학교의 역사와 교육,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그 지역의 이야기. “노동의 참된 가치를 알며, 사람과 지역과 자연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이 시대의 평민을 길러 내자.”는 기치 아래, 1958년 설립된 풀무학교는 전교생이 80명 남짓한 작은 학교이다. 이 책은 풀무학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학생들의 생활 모습과 함께 물 흐르듯 보여 주면서 이 시대 교육은 어떠해야 하며,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남겨 주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한다.

차례 다시 풀무학교를 돌아보며 | 우리 교육이 되찾아야 할 열 가지 | 무엇을 꿈꾸는가 |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르는 작은 학교 |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3년 | 자연과 생명을 살리는 지역 공동체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학교 설립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 작고 보잘것없어도 우리 힘으로! | 문답으로 알아보는 풀무학교 생활

풀무학교 홍순명 선생의 이야기 모음집 들풀들이 들려주는 위대한 백성 이야기 ① ② ③

홍순명 지음
신국판 | 각 권 200쪽 내외
1·2권 6,800원 3권 7,900원



풀무학교 홍순명 선생이 우리 전래 이야기의 비교육적인 면들을 바로잡아 현대적이고 교육적인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 재구성했다. 선생은 심청이와 흥부, 흥길동, 선녀와 나무꾼 등 전래동화 주인공들에게 우리 민족이 겪은 모든 수난을 투영하면서 이 땅의 민초들이 들풀처럼 깨끗하게 살아가며 만드는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 첫째 묶음** 새 심청전 | 새 흥부전 | 선녀와 나무꾼
- 둘째 묶음** 새 흥길동전 | 새 춘향전
- 셋째 묶음** 해님 달님 | 피리 소년 | 두꺼비 | 흥동 마당극-고루 화(和) 세상 | 팔도 민요

2012 1차 KBS한국어능력시험 선정도서
47회 한국출판문화상 어린이·청소년 부문 수상
2004 문화체육관광부 교양 부문 추천도서
2004 전교조 선정 읽을 만한 책
2004 책따세 선정 어류방학 권장도서

과레스키 가족 일기 까칠한 가족

조반니노 과레스키 지음 | 김운찬 옮김
사륙판 | 408쪽 | 9,800원



까칠하지만 정감 있는 포복절도 과레스키 가족을 만나 보세요!

‘돈 카밀로와 페포네’ 시리즈로 지난 몇십 년간 꾸준히 사랑 받아 온 조반니노 과레스키의 자전적 가족 소설. 과레스키는 『까칠한 가족』에서 평범한 가족이 엮어 가는 소소한 일상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애증, 오해와 갈등을 특유의 유머와 날카로운 필치로 그려 내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유명 소설가이나 집안에서는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화자 조반니노와 약간은 몽상적이고 현실 감각이 없는 듯한 부인 마르게리타,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갖고 있는 아들 알베르티노, 어리지만 논리 정연한 딸 파시오나리아는 가족이라는 무대를 통해 인간의 삶과 일상적 드라마를 매우 정교하게 재현하고 있다.

과레스키 가족 일기 까칠한 가정부

조반니노 과레스키 지음 | 김운찬 옮김
사륙판 | 352쪽 | 9,800원



신세대 가정부에 만만찮은 손자까지 유쾌한 과레스키 3대, 돌아오다!

『까칠한 가족』 그 두 번째 이야기. 『까칠한 가족』이 과레스키와 아내 마르게리타, 아들 알베르티노와 딸 파시오나리아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풀었다면, 이 책에서는 손자 미켈로네와 손녀 페노메나, 가정부 조가 새롭게 등장한다.

알베르티노와 파시오나리아의 독립 이후 과레스키 부부는 신세대 현대 여성인 가정부 조와 함께 살게 되는데,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들이 엮어 가는 일상은 너털웃음을 터뜨릴 정도로 유쾌하면서도 따뜻하다. 다 읽은 후엔 가족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될 만큼 여운이 남는 작품이다.

베토벤 심리 상담 보고서

김태형 지음 | 신국판 변형 | 280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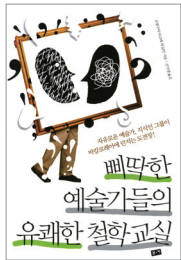
부모의 영향력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베토벤과 저자의 가상 대화를 바탕으로 한 심리 상담기. 한 인간의 심리적 상처는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에 겪었던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자였던 반면 어머니는 지고지순한 모정의 소유자로 세간에 알려져 있지만, 베토벤에 관한 전기와 자료들을 참고해 살펴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다.

2008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삐딱한 예술가들의 유쾌한 철학 교실

프랑스어 다고네 외 22인 지음 | 신지영 옮김
신국판 | 228쪽 | 11,000원



작가, 만화가, 과학자, 변호사들이 철학에 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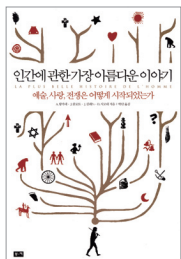
프랑스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 '바칼로레아'에 출제된 철학 문제들에 대해 스물두 명의 예술가·지식인들이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답한 책.

단편 소설이나 시, 에세이는 물론, 심지어 소회극이나 독백, 삽화가 곁들여진 텍스트, 만화 형태로 제시되는 답을 통해 철학이 철학사에 등장하는 철학자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개념, 이론만을 외우는 학문이 아님을 보여 준다.

2008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인간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앙드레 랑가네 외 3인 지음 | 박단 옮김
신국판 | 253쪽 | 10,000원



인간이 인간 되게 한 것은 무엇일까?

프랑스의 권위 있는 주간지 『엑스프레스』의 편집주간인 도미니크 시모네와 유전학자인 앙드레 랑가네, 동굴 전문가인 장 클로트, 신석기 시대 전문가인 장 길레나가 펼쳐는 300만 년 동안의 인류 이야기.

전문 용어와 전문 지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치 아이들처럼 모든 문제들, 특히 가장 단순하고 고지식한 문제들을 제기하며 과학적이면서 상식적으로 그 답을 풀어낸다.

20세기 박물관 시리즈

필립 뷔통 외 지음 | 소민영 외 옮김
사륙배판 변형 | 각 권 250쪽 내외
각 권 17,500원



4권으로 압축한 100년의 세계 역사

20세기 100년이 이전 시대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와 같은 시대를 호흡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체험한 당대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정리하고자 기획된 시리즈. 20세기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공산주의와 전쟁, 페미니즘, 미국을 꼽아 격변의 시기를 그려냈다. 시대를 꿰뚫는 첨예한 필치에 풍부한 도판 자료를 곁들여 도색되고 변형된 과거의 중요한 순간을 선명하게 되살리고, 21세기 미래의 진행 방향을 바르게 예측하게 해 준다.

- 1권 유엔된 유토피아, 공산주의
- 2권 인류의 영원한 굴레, 전쟁
- 3권 저속과 과속의 부조화, 페미니즘
- 4권 최초의 세계 제국, 미국

선비들의 고단한 여정

딸과 함께 읽는 답사 여행기

이용재 지음
신국판 변형 | 268쪽 | 11,500원



어라, 가까운 곳에 이런 역시 현상이 있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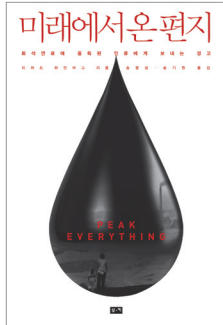
건축 평론가로 『딸과 함께 떠나는 건축 여행』 등을 통해 건축물에 담긴 역사와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온 저자가 이번에는 선비들의 발자취를 따라 나섰다.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겨 궁궐에서 쫓겨난 단종에서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 이구까지, 그들의 고단한 여정이 남아 있는 옛 건축물을 하나하나 찾아간다. 아빠와 딸의 대화를 통해 딱딱한 교과서 속 선비들이 툭툭 튀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 건축 글쟁이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해집고 다니는 저자의 관심사가 이번에는 조선 시대의 선비들로 향했다. 딱딱한 교과서 속 암기 대상이었던 역사 인물들이 우리처럼 피가 도는 따듯한 존재로, 때론 성깔 부리는 생생한 캐릭터로 바뀐다. _한겨레

2009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화석연료에 중독된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미래에서 온 편지

리처드 하인버그 지음 | 송광성·송기원 옮김
신국판 | 276쪽 | 14,000원



지금 필요한 건 앞을 내다보는 프로메테우스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에피메테우스의 지혜와 성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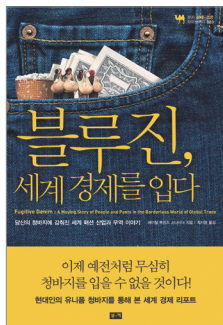
‘인간이 어떻게 지구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답을 모색하는 이 책은 석유정점 문제뿐 아니라 유기농업에서 공업디자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언어학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심오한 예측이 조합된 도발적 생각들을 풀어 놓고 있다.

저자는 화석에너지만이 아니라 현대 문명의 모든 측면에서 한계와 종말의 징후가 보인다면서 더 심층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쇠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단순히 다가올 파멸의 예고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위한 희망찬 전망이라 봐야 할 것이다.

2011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2010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 추천도서

부기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3 블루진, 세계 경제를 입다

레이철 루이즈 스나이더 지음 | 최지향 옮김
신국판 | 388쪽 | 14,000원



이제 예전처럼 무심히 청바지를 입을 수 없을 것이다! 현대인의 유니폼 청바지를 통해 본 세계 경제 리포트

옷에 붙은 'Made in ○○○' 라벨만 보고는 그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연관된 수많은 국가, 무역 조약,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베테랑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현장 중심의 폭넓은 취재를 바탕으로 패션 산업 현장에서 옷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목화를 채취하는 노동자부터 캄보디아의 열악한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소녀, 이탈리아의 원단 제조업자와 뉴욕의 일류 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안테나는 전 세계를 아우른다. 노동자 인권, 세계화된 시장, 환경 오염과 공정 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저자의 진지한 질문들을 읽고 나면, 청바지를 입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 책의 등장인물들이 떠오를 것이다.

2007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비즈니스 분야 최고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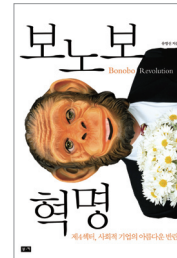
자본주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한국의 보노보들

안치용 외 지음
신국판 | 408쪽 | 14,000원



제4섹터, 사회적 기업의 아름다운 반란 보노보 혁명

유병선 지음
신국판 변형 | 252쪽 | 12,000원



우리 모두를 위한 비폭력 교과서

아키 유키오 지음 | 김원식 옮김
신국판 | 200쪽 | 8,000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한다.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이 소외된 이웃과 공연을 한다. 시민운동가가 엄마의 마음으로 친환경 버거를 만든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은 이웃과 환경, 문화와 고용, 참살이와 장애인을 생각한다. 침팬지가 무한 경쟁을 쫓는다면 보노보는 상생을 추구한다. 이 책은 250개가 넘는 우리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36곳을 찾아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으로 젊은이들과 창업 예비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 있는 이에게 희망찬 도전을 준다.

2011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2010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북리펀드 2010년 6월 선정도서

보노보는 유전적으로 침팬지만큼이나 인간에 가까운 유인원이다. 우리는 인간이 침팬지처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천성을 가졌다는 결론에는 익숙한 반면, 인간 유전자 속에는 낙천적이고, 협력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보노보의 천성 또한 새겨져 있다는 것은 잘 모른다.

승자독식과 '20 대 80' 이론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시대는 활취고 급한 상처가 가득한 침팬지의 세계다.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보노보들 역시 적지 않다. 스티브 잡스의 혁신과 테라사 수녀의 자비를 모두 갖춘 기업 및 기업가들의 보노보 혁명의 현장으로 달려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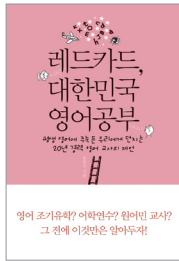
2008 한국출판인회의 선정 이달의 책

폭력과 비폭력의 개념, 비폭력주의자들, 비폭력 행동의 실패, 비폭력적 대응과 삶의 방법 등 비폭력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학교 폭력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폭력을 살펴봄으로써, 폭력과 비폭력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시각과 비폭력이 단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공한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똑같이 소중한, 똑같이 존중받고, 폭력으로부터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 까닭에 비폭력 운동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은 폭력, 악, 사회의 부정(不正)에 분노한 나머지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장설 뜻을 가지는 '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부록으로 '비폭력 실천 매뉴얼'을 덧붙였다.

레드카드, 대한민국 영어공부

송봉숙 지음
신국판 변형 | 224쪽 | 11,000원



나의 영어 공부 이력서

김민식 외 16인 지음 | 신국판 | 264쪽 | 9,800원



중학생 공부 고민 상담실

이지은 지음 | 신국판 변형 | 336쪽 | 11,000원



평생 영어에 주눅 든 우리에게 던지는

20년 경력 영어 교사의 제언

초등 6학년 겨울방학 때 만난 영어에 반해 30년 영어 공부를 하고 20년 동안 영어 교사로 지낸 저자는 '나는 왜 원어민처럼 말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안고 마흔둘의 나이에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로 가서 TESOL 석사과정에 입학한다. 그곳에서 저자는 그간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좌절하게 된 이유는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잘못된 교육 목표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저자는 이제라도 공부하느라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영어 공부의 실패자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영어 고수 17인이 털어놓다

'한국인 토의 점수 비영어권 중엔 최고!'라는 헤드라인에 한숨만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영어 고수 17명이 자신들의 영어 공부 노하우를 털어놓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들 17명도 처음부터 영어 고수는 아니었다. 이들도 남들과 별다를 바 없이 영어에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이웃이었으나, 갖은 고생 끝에 어느새 영어 도사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 책은 영어깨나 한다는 17명이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 남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를 솔직담백한 어조로 밝히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날 싸우는 공부 고민 55가지

중학생의 공부 고민에 오랫동안 귀를 기울여 온 학습 상담 및 학습법 전문가인 저자가 중학생의 대표적인 공부 고민 55가지를 제시하고 실제 상담에서 터득한 해결책을 조목조목 제시한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학교 공부 따라잡기, 학원과 과외 등 학교 밖 공부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포인트는 물론 부모와의 관계, 진로 문제까지 속 시원히 짚어 준다.

한줄로 익히는 초등한자 650

① ②

정춘수 지음 | 이해경 그림
사륙배판 | 각권 248, 236쪽 | 각권 12,000원



만화로 즐기는 한자 오디세이

① ② ③

정춘수 글 | 박준상 그림
사륙배판 | 각권 180쪽 내외
1권 8,500원 2·3권 9,500원



한자가 한 줄에 꿰인 굴비처럼 줄줄줄~ 초등학교 권장 한자 600자가 술술술~

초등학교 권장 한자 600자+50자와 각 한자의 기본 정보(획수, 부수, 한자 급수)를 실은 초등 고학년용 한자 학습서.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따라 뽑은 '딱 한 줄의 문장'과 한자의 형태를 알려 주는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한자를 공부할 수 있다. 8급에서 5급까지 초등학교용 한자 급수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고, 초등 교과서에서 가려 뽑은 1000여 자의 낱말도 실려 있어 교과 공부를 위한 어휘력도 늘릴 수 있다. 한자 차체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그 한자와 관련된 신화와 역사 등을 풍부한 시각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한자에 담긴 옛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도 저절로 익힐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색이다.

50자를 알면 50자를 깨친다! 5급 시험 준비에 생활 한자의 기초까지!

5~8급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대비한 한자 학습 만화 시리즈. 자원(字源)에 기초를 둔 학습 방법을 통해 기본 한자 50자만 알면 50자를 깨칠 수 있도록 하였다. 만화적 재미는 재미대로 유지하면서, 한자 학습에서도 역시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에듀테인먼트 만화'이다. 1권은 몸·손·발·얼굴로 한자를 만든 과정이, 2권은 무기·일·그릇·마술 도구로 한자를 만든 과정이, 3권은 집·자연 풍경·동물·식물로 한자를 만든 과정이 재미있게 그려진다.

- 1권 우와~ 한자가 몸짓을 하네!
- 2권 우와~ 한자가 물건을 만드네!
- 3권 우와~ 한자가 풍경을 그리네!

2003 문화콘텐츠진흥원 우수실용만화

도서출판 부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06-10 산성빌딩 6층

전화 02 325 0846 **팩스** 02 3141 4066

홈페이지 www.bookie.co.kr

이메일 webmaster@bookie.co.kr

블로그 blog.bookie.co.kr

blog.naver.com/bookiemb

트위터 [@bookiepub](https://twitter.com/bookiepub)

페이스북 www.facebook.com/bookiemb

부키 직거래 서점

전국 대형 서점 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

온라인 서점 교보 인터넷, 리브로, 서울 인터넷,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G마켓, 11번가

도매 및 출판 동남서적, 만나서적, 북센, 북플러스, 서당, 송인서적, 자유서적, 책이랑, 출판협동조합

서울 지역 골드북, 노원문고, 흥익문고

인천·경기 지역 경인문고, 대동서적, 지에스 인천공항

대전·충청 지역 중부서적

대구·경북 지역 한일서적

부산·경남 지역 영광도서

광주·전라 지역 중앙서점, 충장서림

